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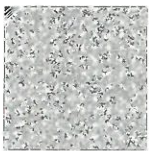
시온 주보

제2319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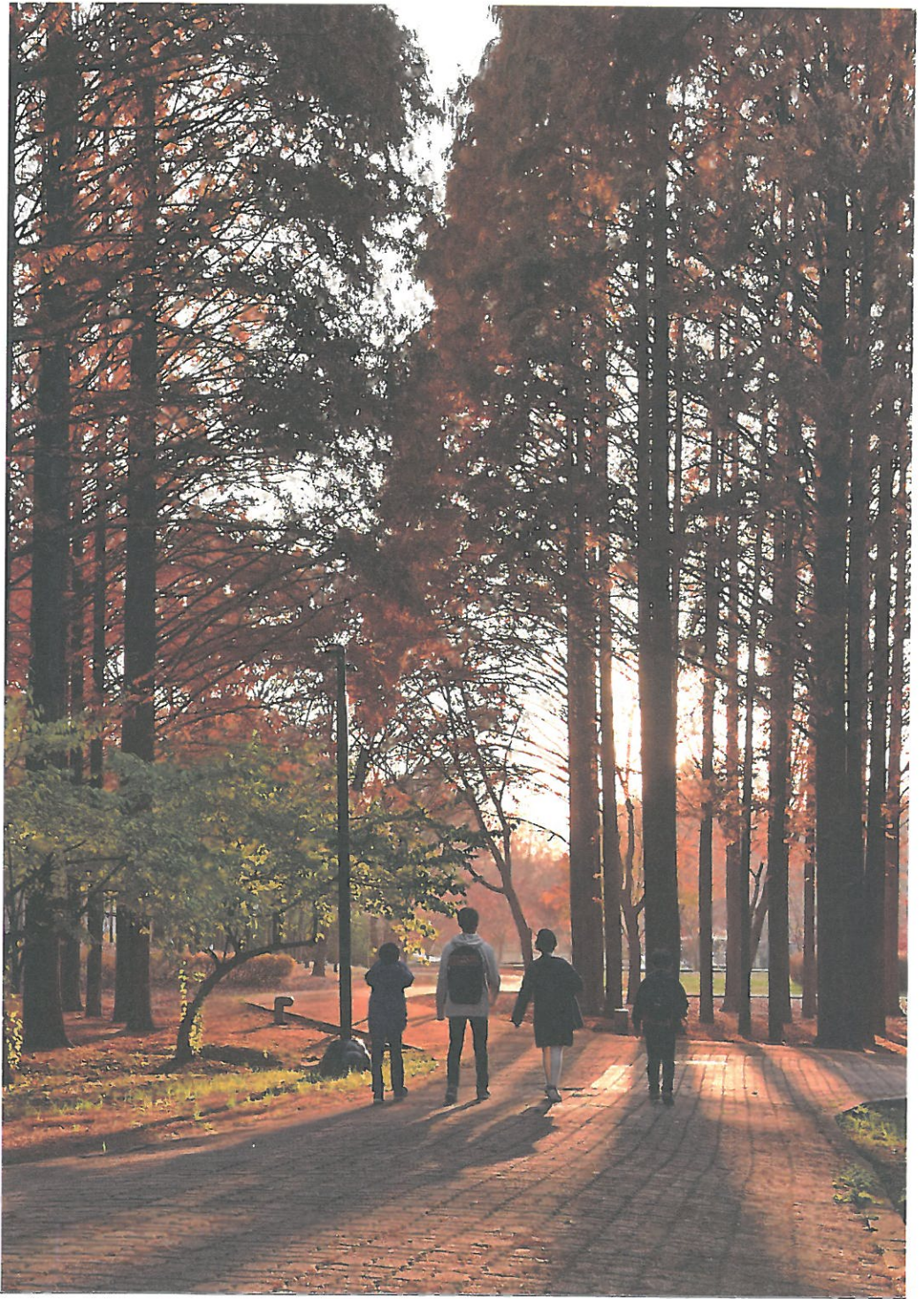
2020년 12월 27일(나해)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
(가정 성화 주간)

발행  천주교 서울대교구
발행인 염수정
편집 문화홍보국 주보편집팀
인쇄 가톨릭출판사
전화 02)727-2114
이메일 jubo@seoul.catholic.kr
홈페이지 <http://cc.catholic.or.kr>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4
천주교 서울대교구청
7층 문화홍보국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



입당송 | 루카 2,16 참조

목자들은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운 아기를 보았네.

제1독서 | 집회 3,2-6.12-14<또는 창세 15,1-6; 21,1-3>

화답송 | 시편 128(127),1-2.3.4-5(◎ 1)

- ◎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네 손으로 벌여 네가 먹으리니, 너는 행복하여라, 너는 복을 받으리라. ◎
- 너의 집 안방에 있는 아내는, 풍성한 포도나무 같고, 너의 밥상에 둘러앉은 아들들은, 올리브 나무 햇순 같구나. ◎

○ 보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렇듯 복을 받으리라. 주님은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너는 한평생 모든 날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리라. ◎

제2독서 | 콜로 3,12-21<또는 히브 11,8.11-12.17-19>

복음환호송 | 콜로 3,15.16

◎ 알렐루야.

○ 그리스도의 평가가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여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 풍성히 머무르게 하여라. ◎

복음 | 루카 2,22-40<또는 2,22.39-40>

영성체송 | 바룩 3,38 참조

우리 하느님이 세상에 나타나시어, 사람들과 함께 사셨네.



김상우 바오로 신부 |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가족

유학 중에 종종 고향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함께 지내던 형제자매들, 동네 뒤편에 자리 잡고 있던 산자락, 학창 시절의 방황과 꿈이 깃들어 있는 비좁은 골목, 어머니께서 지어주셨던 따뜻한 밥... 그때는 그토록 지겹고 싫었던 것들까지 지금의 저 자신을 만들어준 소중한 선물임을 깨닫습니다. 저는 이 모든 기억에 '가족'이라는 이름을 붙여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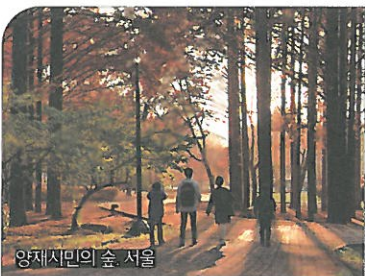
이번 주일은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입니다. 교회는 예수 성탄 대축일 다음에 오는 주일을 성가정 축일로 기념하며, 그 주간을 가정 성화 주간으로 지냅니다. 나자렛 성가정의 모범을 따라 예수님을 중심으로 사랑과 일치와 친교의 가정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생각해 봐야 할 화두입니다.

한편 현대의 가정은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1인 1가구 가정 등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국면에서 그리스도인은 가정공동체의 의미를 어떻게 실현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주일 복음말씀(루카 2,22-40)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봅니다.

율법에 따라 아기 예수님을 봉헌하기 위해 마리아와 요셉이 예루살렘 성전에 이르렀을 때, 예언자 시메온과 한나를 만나 펼쳐지는 상황이 복음의 핵심 줄거리입니다. 시메온은 '의롭고 독실하며 이스라엘이 위로받을 때를 기다리는 이'로 구세주를 직접 뵈기 전에 눈을 감지 않을 것이라

는 성령의 말씀을 믿고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받아 안으며 하느님을 찬미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향해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쓰러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며, 또 반대를 받는 표징이 되도록 정해졌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뚫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루카 2,34-35)라는 예언을 전합니다.

그렇다면 시메온의 예언을 들은 마리아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요? 또 요셉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나자렛 성가정은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시메온의 예언을 들은 것만으로도 근심 걱정이 전혀 없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나자렛 성가정은 세상 기준에 따라 '완벽한' 가정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련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 나자렛 성가정이 사랑과 일치와 친교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참다운 의미의 '가족'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족은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말하지 않아도 먼저 이해해 주며, 있는 그대로의 못난 모습까지 안아주기에 '가족'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짐이 되고 상처가 되며 심지어 원수까지 되어 버리는 구체적 현실 속에서도, 가정공동체의 화해와 용서를 완성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여러분 각자가 속해있는 가정공동체의 구성원들 가운데 화해와 용서가 필요한 가족의 얼굴을 떠올리며 짧은 화살기도를 바쳐보시기를 청합니다.



양재시민의 숲 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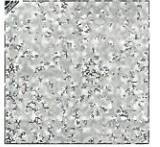
"아내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남편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자녀 여러분, 무슨 일에서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골로 3,18-20)



거룩한 나자렛 성가정 축일은 우리 모두의 축일입니다. 따로, 함께, 나란히 서서 힘차게 걸어가는 가족의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하느님의 뜻대로 살기를 희망하고, 이를 실천하는 가정에 하느님의 축복이 가득합니다. 저의 울음을 내세우지 않고, 내 맘 감지 않은 가족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는 은총을 마음 모아 주님께 청해봅니다.

이혜련 분다 | 가톨릭사진가회

「노사제가 만화로 남기는 신학교 이야기」(임충신 글·그림, 가톨릭출판사)은 100여 년 전 용산 신학교에 입학한 한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올 한 해 동안 故 임충신 신부님의 삶을 통해 옛 신학교 모습과 생활을 다룹니다.



셋째 번 신학교(용산 함벽정函碧亭 1887)

위의 건물은, 군난 때 첫 번은 배론, 두 번째는 부흥골, 세 번째 신앙 자유 후 1887년에 龍山(용산)에 세워진 신학교인데, 성당으로 사용하다가 1891년에 정식으로 신학교를 건축한 후, 세수방으로 사용하였다. 아침 5시면 세수방으로 들어가 15분간 세수를 하는데 겨울에는 큰 통의 물이 얼어서 몽둥이로 얼음을 깨뜨린 후, 어떤 학생들은 얼음 조각으로 세수를 하였다.

보름마다 한 번씩 마당에 더운물을 갖다주는데 학생들은 저마끔 편리한 자리를 찾아 안고서 발들을 씻는다. 이날은 소위 <濯足日(탁족일) Lotio pedum>이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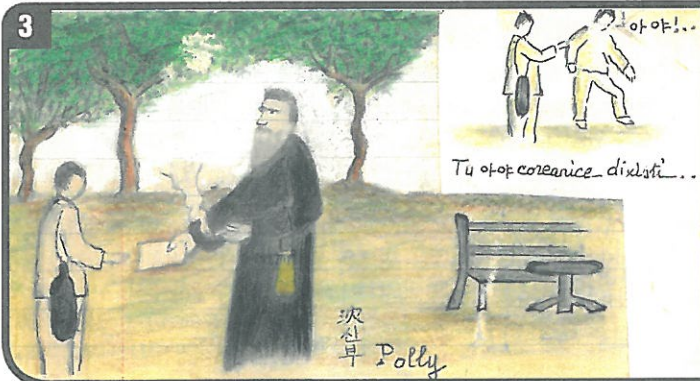


빨래 문서

빨래 문서

빨래 자루

보름 만에 한 번씩 탁족을 한 후, 다음날은 내복 등을 갈아입고, 입었던 옷들은 수녀원으로 빨래를 보내는데 수녀원에서 그저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세탁물의 가지 수대로 세탁 요금을 받는다. 그래서 문서를 하여야 적당한 요금을 지불할 수 있기 때문에 소위 <빨래 문서>를 교장 신부께서 작성하신다. 각 학생마다 빨래 가짓수를 신부께 말씀드리는데 대개 버선, 양말, 세수수건, 밥수건, 코수건, 적삼, 고의 등이다. 각 세탁물에 번호를 매긴 것을 같은 번호 자루에 넣는데, 수녀원에서 빨래가 온 후, 각자가 자기 번호 자루를 찾으려면 그 안에 세탁된 자기 물건들이 있다. 내 번호는 99였다.



심 신부가 라틴어 장려 목적으로 한 학생 보고 "너 아까 조선말 한 벌로 이 쇠덩어리를 항상 몸에 가지고 다녀라. 그러다가 조선 말하는 다른 학생을 발견하면, 이것을 그자에게 전하고 또 그자는 조선말하는 다른 학생에게 전하여 항상 항상 이 쇠덩어리는 너희들 몸에 지니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쇠덩어리는 길쭉하고 매우 무겁다. 처음에는 아직 잘들 몰라서, 쉽게 전할 수가 있었으나 며칠 지나니까 쇠덩어리를 가진 학생이 오면 도무지 병어리들이 되어 말들을 안 한다. 라틴말은 못하겠고, 조선말을 하다가는 쇠덩어리를 받겠고...

어떤 학생이 며칠을 지나도 도무지 쇠덩어리를 전할 수 없으니까 피를 내었다. 가만히 서 있는 어떤 학생의 팔을 힘껏 꺾었다. 그 학생은 무의식중에 "아야!..." 하고 소리를 지르니 "이 쇠덩어리를 이제는 네가 받아라, (아야!)가 조선말 아니냐?" 하고 쇠덩어리를 전해 주었다.

나중에는 반대 현상이 일어났다. 겨울에 침실은 냉방이다. 쇠덩어리를 교실 난로 위에 하루종일 올려놓았다가 찬 이불 속에 넣고 자니 따뜻하기 이를 데 없었다. 그래서 이제는 쇠덩어리를 저마끔 가지려고 했다.



오늘(12월 27일)은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이며 이날부터 ‘가정 성화 주간(12월 27일~2021년 1월 2일)’이 시작됩니다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은 나자렛의 성가정을 기억하며 이를 본받고자 1921년에 제정한 축일입니다. 1969년 전례력을 개정하면서 ‘성탄 팔일 축제’ 내 주일로 옮겨 지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부터 해마다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부터 한 주간을 ‘가정 성화 주간’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제20회 가정 성화 주간 담화문은 서울주보 홈페이지(<http://cc.catholic.or.kr>)-교회발표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1월 1일(금)은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이며 ‘세계 평화의 날’입니다

지역마다 다른 날짜에 기념해 오던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은 1931년부터 전 세계 교회의 보편 축일이 되었고, 1970년부터 모든 교회에서 해마다 1월 1일에 지내고 있습니다. 1968년 교황 바오로 6세는 이날을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는 ‘세계 평화의 날’로 정하였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밤 9시 주모경 바치기 운동

2020년은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밤 9시 주모경 바치기’에 동참해 주십시오.

가톨릭 교리상식

서울주보에 물어보세요!

더 자세한 내용 QR 스캔 ▲

참여기간 11월 28일(토)~12월 31일(목)
참여방법 서울주보 홈페이지(cc.catholic.or.kr) 접속
 -> 홈페이지 하단 이벤트

경감룡(요셉) 주교 선종



대전교구 제3대 교구장 경감룡(요셉, 91세) 주교께서 지난 12월 16일(수)에 선종 하셨습니다. 12월 18일(금)에 장례미사를 거행했으며, 대전교구 성직자모원에 안장 되셨습니다.

‘성 요셉의 해’ 선포(2020년 12월 8일~2021년 12월 8일)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 12월 8일(화)에 ‘성 요셉의 해’를 선포하고, 가톨릭교회는 앞으로 1년간 특별한 방법으로 요셉 성인의 삶과 영성을 기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교황은 이날 발표한 교서 『아버지의 마음』(Patris corde)을 통해 “모든 신자가 성 요셉의 모범을 따르고, 하느님의 완전한 충실성 안에서 신앙적 삶을 강화하길 바라며” 성 요셉의 해를 선포한다고 말했습니다.

2021년 ‘서울주보’ 필진 안내

표지 사진	서울대교구 가톨릭사진가회	
생명의 말씀(첫째주)	염수정 추기경 · 정순택 주교 · 구요비 주교 · 손희송 주교	
생명의 말씀(둘째주)	유승록 신부(등촌1동주임, 제17강서지구장)	
생명의 말씀(셋째주)	김상우 신부(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교수)	
생명의 말씀(넷째주)	이광휘 신부(이주사목위원회 위원장)	
생명의 말씀(다섯째주)	유환민 신부(문화홍보국장)	
생명의 말씀	특별 주일 · 기도의 날: 해당 사목 담당 신부	
사랑의 손길	한마음한몸운동본부	
가톨릭 교리상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문화홍보국	
기획특집 김대건 신부님	조한건 신부(한국교회사연구소 소장)	
영화칼럼	이대현(국민대 겸임교수, 영화평론가)	
생태환경	환경사목위원회	

2020년 한 해 동안 ‘서울주보’를 통해 좋은 말씀을 들려주신 필진께 감사드립니다.
*서울주보는 [홈페이지 cc.catholic.or.kr]와 [서울주보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교구청알림

신임 사목위원 교육(주말반 · 평일반)

대상: 본당 신임사목위원
 때, 곳: 주말반 2021년 1월23일(토) 13시~17시 · 평일반 2021년 1월25일(월) 13시~17시,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회비: 2만원(2021년 1월15일 마감)
 본당 사무실에서 교구 양업 시스템으로 접수
 문의: 02)727-2069 사목국 교육지원팀

경찰사목위원회 선교사 양성교육(2021-1차 교육생 모집)
 대상: 경찰사목 선교사 활동에 관심 있는 견진성사를 받은 교우
 교육기간: 2021년 2월3일~6월30일 매주(수) / 20주 과정
 교육장소: 가톨릭회관(명동) / 회비: 10만원
 신청기한: 2021년 1월29일(금)까지
 문의(접수): 02)742-9471, 3 경찰사목위원회 교육센터
 경찰사목 선교사 활동 및 교육과정은 홈페이지(www.catholicpolice.or.kr) 참조

갤러리1898 전시안내 / 문의: 02)727-2336

가톨릭 청년 미술가회 정기전: 1, 2, 3전시실
 전시일정: 12월30일(수)~2021년 1월4일(월)

성경통독 요한계문헌 피정

때: 12월30일(수) 12시~17시 / 강약: 조창수 신부
 곳: 가톨릭회관 3층 강의실 / 회비: 2만원
 문의: 010-7586-5425 사목국

영성심리상담교육원 서울가톨릭상담센터 개인심리상담

심리정서(불안, 우울, 성격), 대인관계 어려움, 직장 및 학교 부적응, 가족관계, 진로상담
 곳: 서울대교구청 별관 가톨릭상담센터 B106호, 4성북지구(노동사목회관), 5지구(노원성당), 9지구(천호동성당), 13지구(삼성산성당), 17지구(화곡본동성당)
 문의(예약): 02)727-2139 / (월~금) 10시~18시
 전화상담: 02)727-2137 / (월~금) 10시~17시(점심시간 12시~13시)

서울대교구 해외선교후원회 신년 하례미사

대상: 별도의 신청 없이 누구나(회비 없음)
 때: 2021년 1월7일(목) 오후 2시~3시
 곳: 가톨릭회관 1층 강당 / 문의: 02)727-2407, 2409
 집전: 송영호 국장신부, 김윤상 차장신부(해외선교봉사국)

‘임 가신 길, 임 따라 걷는 길’ 순례 신청안내

때: 2021년 1월19일(화) 오후 1시부터 / 코스: 김대건 신부 치명 순교길(우포도청 터~절두산순교성지) 흑한기(1, 2월) 순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진행합니다
 회비: 1인 7천원 / 간단한 간식 제공
 신청: 12월28일(월) 오전 9시부터 순교자현양위원회 홈페이지(www.martyrs.or.kr) 선착순 접수
 방역지침 준수, 전화 및 문자 접수 받지 않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 문의: 02)2269-0413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서는
6.25 전사자와 유가족을 찾고 있습니다**
 문의: 1577-5625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인준단체 일람

모임

작은예수수녀회 매일 철야기도 예뵐

대상: 중재기도(특별기도) 필요하신 분
 때: 12월1일~31일 / 문의: 010-5482-3217

2021년 1월 젊은이 성체초배의 밤

때, 곳: 1월2일(토) 15시~17시, 가톨릭회관 1층
 문의: 02)6253-3373, 010-8360-3700
 주최: 사랑이 피는 기도모임 / 코로나19로 인하여 2021년 대피정은 8월7일로 연기됩니다

2021년 1월 가정선교회 찬양·치유·회복 피정

때, 곳: 2021년 1월25일 14시~18시, 가톨릭회관 7층 강당
 한철호 신부, 이현주 회장 / 회비 없음, 식수 준비
 찬양: 고영민 단장과 손현희 악기팀
 문의: 010-6281-8626, 010-5710-6510, 02)777-1773 대표

제주 면형의 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도회 수사들과 함께 제주성지·역사·평화순례·미사(성무일도), 나눔, 올레길·오름 트레킹
 한라산눈꽃피정: 2021년 1월8일~10일, 1월23일~25일, 1월29일~31일, 2월5일~7일, 2월20일~23일, 2월27일~3월1일 / 문의(접수): 02)773-1463, 064)756-6009

효소단식 성체신심 치유 피정(가톨릭 교수회)

내용: 공복감 없는 효소단식으로 면역력도 올리고 성체신심의 은혜로 영육간의 건강과 자연치유력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피정 / 회비: 36만원(단식 효소비 포함)
 지도: 토마스 모어 원장 신부 / 문의: 010-9916-5798 신부, 010-9363-7784 신 글라라
 때, 곳: (금~월) 2021년 1월8일~11일·1월15일~18일·2월19일~22일, 성 도미니코수도원(수유동)

베네딕도회 성경통독 8일 단식 피정

곳: 성 베네딕도회 화순 수도원(http://hsosb.or.kr)
 제85차 2021년 1월22일(금)~30일(토) / 문의: 061)373-3001, 010-3540-9001
 제86차 2021년 2월5일(금)~13일(토)

음악치유 피정 및 음악심리상담 초급 과정

곳: 한국음악치료연구소(전철 3호선 대청역)
 문의: 010-4252-1165, 02)575-7661 가톨릭성음악 클래식기타회(지도 김경희 신부)

음악치유 피정반	2021년 1월8일~22일 매주(금) 13시~17시	회비: 12만원
음악심리상담사 자격증반	2021년 1월14일~28일 매주(목) 13시~17시	회비: 15만원

교육

원데이 묵주 만들기 체험(가톨릭목공예)

카페: cafe.naver.com/cmc04 / 문의: 010-5234-5044

온라인 마리아학교 수강자 모집

언제나 어디서나 폰이나 인터넷에서 수강가능함, 성모님에 관한 모든 것을 배움 / 2021년 1월말까지 접수 5개월 과정 / 문의(접수): 010-9620-4820 마리아학교

한국여성생활연구원 / 문의: 02)727-2471

성인초등·중학생(교육부출판장), 초중고졸 검정고시생모집

성경공부 탈출기(ICPE 선교회)

때, 곳: 2021년 1월14일~3월18일 매주(목) 20시 (10회), ICPE선교회(대면·비대면) / 회비: 3만원
 인원: 선착순 10명 / 문의: 010-7548-6664

CaFF영화제작워크숍 11기 모집

때: 2021년 3월2일(화)~6월12일(토) 매주(화) 18시30분~21시(14주간) / 문의: 0507-1424-0712 가톨릭영화인협회
 회비: 40만원(실습비 포함) / 접수는 홈페이지(caff.kr) 참조

수원교구 사이버성경학교 특별 이벤트

2021년을 말씀과 함께 / 문의: 010-7470-7966
 1과목 수강료로 2과목 공부할
 상세 내용은 사이버성경학교 홈페이지 참조

2021년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우편) 신학 과정

내용: 가톨릭 신학 26과목 / 문의: 02)745-8339
 원서접수: 2021년 2월10일(수)까지 우편접수 가능
 홈페이지: ci.catholic.ac.kr(원서 다운 가능)

2021학년도 인천가톨릭대학교 신입생 정시 모집

접수: 2021년 1월7일(목)~11일(월) / 전형: 수능, 실기
 학과: 조형예술학과, 융합디자인학과, 간호학과
 문의: 032)830-7022 송도국제캠퍼스 입학홍보과

목포가톨릭대학교 신입생 정시 모집

모집학과·인원: 간호학과 9명
 원서접수: 2021년 1월7일(목)~11일(월)
 인터넷 원서접수처: 유웨이
 문의·입학상담: 061)280-5108, 5150

2021년 노들담교리교재연구소 교리학교 15주 과정

문의: 010-2123-6319(http://cafe.daum.net/ndfirst)

대면	3월15일부터 매주(월) 10시~12시, 노들담교육관
비대면	3월17일부터 매주(수) 19시~21시, Zoom

서울대교구 북방선교회 중국어반(25차) 수강생 모집

곳: 가톨릭회관 202호 / 회비: 7만원(3개월, 교재비 별도)
 인원: 기초반 10명, 초급반 10명, 중·고급반 각 5~6명
 개강: 2021년 1월5일(기초·초급반), 7일(중·고급반)
 접수: 12월28일~2021년 1월5일(선착순) / 010-6219-1575

(화)	기초반 10시30분~13시	초급반 14시~16시30분
(목)	중급반 10시30분~13시	고급반 14시~16시30분

깊이 있는 전례를 위한 보이스 트레이닝

전례 봉사자를 위한 맞춤 교육으로서 기본적인 전례 교육 및 호흡·발음·발성 연습
 강사: 이우진 주임 신부(인천교구 불로동성당)
 수강 인원 20명 이하(저녁반은 10명 미만시 자동 취소)
 미사 후 1시간~1시간30분 진행(2개월 8회 강의)
 회비: 1인당 20만원(독서·해설 봉사자는 50% 할인)
 문의: 032)569-1004 불로동성당 사무실

주간반	2021년 1월15일(금)부터 오전 10시 미사 후
저녁반	2021년 1월14일(목)부터 오후 7시 미사 후

복음화학교 142기 온라인 개강

복음화학교 142기 1단계 온라인 유튜브 수업(비공개)에 초대합니다
 문의(수강신청): 02)2096-0410, 0411
 새천년복음화사도직협회 복음화학교 교육국
 때: 2021년 1월11일(월) 14시·1월14일(목) 19시

선교아카데미 제10기 교육생 모집

대상: 해외선교 및 선교에 관심이 있는 사제, 수도자, 평신도 / 회비: 80만원(식대 포함)
 때, 곳: 2021년 3월4일~9월30일 매주(목), 한국의방선교회 본부(성북동) / 문의: 02)3673-2528

2021학년도 가톨릭관동대학교 정시 모집

모집기간: 2021년 1월7일(목)~11일(월)
 의과대학, 공과대학, 사범대학, 의료융합대학, 항공대학, 사회과학대학, 미디어예술대학, 관광스포츠대학
 2022학년도 가톨릭지도자추천전형: 의학과, 간호학과 모집 / 문의: 033)649-7000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바라지 신입생 모집

대상: 학교 밖(학업중단·위기) 청소년(중·고등학생)
 검정고시교육, 대안교육(인문·목공·제과제빵·바리스타·뷰티·3D프린팅·도예 등), 문화차집교육, 진로탐색 및 상담, 동아리활동 / 블로그: https://blog.naver.com/baragee2016
 자원교사모집: 검정고시 교과 멘토링, 탁구 동아리 지도
 곳: 살레시오 미래교육원(주최, 신월3동) / 02)2691-6543

가톨릭교리신학원 신입생 모집

가톨릭 신학의 체계적 교육 / 접수: 2021년 1월19일(화)까지
 문의: 02)747-8501(ci.catholic.ac.kr)

교리교육 학과	(월~금) 주간(2년)	세레 3년 이상 견진자 만 70세 미만, 고졸 이상
종교교육 학과	(월~금) 야간(2년)	선교사(교리교사) 자격증 수여
신학심화 과정	(화~목) 주간(1년)	교리·종교학과 졸업생, 본원통신과정 졸업생, 만 70세 미만, 고졸 이상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음악아카데미

교육과정: 수시 모집
 회비: 16만원(8주 기준) / 문의(접수): 해당 과목 강사

오르간	(화) 16시30분~18시30분, 18시30분~20시30분	강사: 강세나 (010-795-6409)
국악기·대금·소금·단소·생활음악악기·팬플룻·통기타·우쿨렐레·오카리나·아이리시틴휘슬	(화, 수) 10시30분~12시30분, 15시~17시, 18시~20시	강사: 김경숙 (010-7930-2074)
재즈피아노	(목) 19시~21시, (금) 10시~12시	강사: 한상희(010-724-1312)

예수회센터 프로그램(2021년 3월 개강)

문의(접수): 02)3276-7733(http://center.jesuits.kr)

'몸 신학' 교리 해설	매주(월) 10시~12시	김해숙박사
일상생활 안에서의 영신수련 20주 과정(2월24일 개강)	매주(수) 10시~12시	권오연 신부 외 예수회 사제
성경대학(현장강의)	둘째·넷째주(수) 14시~16시15분	송봉모 신부
성경대학 (동영상 녹화 강의)	한학기 7회 동영상 링크 발송	
영어성경 나눔	매주(목) 18시15분~19시15분반, 19시30분~20시30분반	Kister 신부

커피바리스타 교육(사)하랑·가톨릭바리스타협회
 교육과정: 커피의 전 과정(에스프레소·라떼아트·홈바리스타·창업·로스팅·자격증(주1회·12주) / 교육문의: 010-9040-8306, 010-2511-6845(<http://club.catholic.or.kr/barista>)
 담당: 이경훈 신부(coffee master)

2021학년도 대구가톨릭대학교 정시 모집
 전국최대규모 가톨릭계 종합대학
 의료보건 및 소프트웨어 특성화대학
 'DCU스마트인재장학' 전원 장학혜택
 입학정원: 2,862명 / 입학상담: 053)850-2580
 총장: 김정우 신부 / 원서접수: 2021년 1월7일(목)~11일(월)

부산가톨릭대학교 2021학년도 신입학 정시 모집
 원서접수: 2021년 1월7일(목) 9시~11일(월) 18시
 모집학과: 간호학과 외 17개 학과
 선발인원은 홈페이지(ipsi.cup.ac.kr) 참조
 전형방법: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100%
 문의: 051)510-0702 입학관리부 김종진 담당

2021년 전기 2차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신입생 모집
 원서접수: 12월21일(월)~2021년 1월8일(금)
 면접일: 2021년 1월14일(목) / 모집과정 및 학과: 석사과정(4학기제), 사회복지, 의료사회복지(종교포함), 노인복지(요양보호포함), 정신건강복지(말말장애·산림치유사 과정 포함)
 온라인(www.uwaj.apply.com) 접수
 곳: 서울성모병원(서초구 반포대로222) 단지 내
 문의: 02)2258-7723 / 대학원 홈페이지: <https://welfare.catholic.ac.kr/welfare/index.html>

2021년 가톨릭 성음악아카데미 교회음악가자격증 과정 모집
 가톨릭교회 인준의 초·중급 교회음악가 자격증 수여(구 가톨릭대학교 교회음악대학원 콘서바토리오 과정)
 원서접수: 2021년 1월11일(월)~23일(토) / 개강: 2021년 3월
 대상: 교회음악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실습을 통해 가톨릭 교회 인준의 교회음악가가 되고자 하는 자
 교육방법: 이론과목 수강 및 연주를 위한 실기레슨, 토요 미사를 통한 실제 전례중심 교육
 곳: 최양업홀(전철 1·4호선 서울역, 2·5호선 충정로역)
 문의: 02)393-2213, 4(<http://www.casm.site>)

미사

첫 토요일 신심미사(파티마의 세계사도직)
 때, 곳: 2021년 1월2일(토) 9시30분~12시(9시30분 켈기도·10시45분 미사),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02)756-3473

인내

영적상담·생활 피정
 다음카페: 하비엘 영성학교(주최) / 문의: 010-2310-9432

성가정임양원(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 문의: 02)764-4741~3
 국내입양 상담 및 입양 전까지 아동을 사랑으로 돌볼 위탁부모를 모집합니다 / www.holyfca.or.kr

제주도 관광
 제주운전기사사도회에서 가족, 효도, 단체관광, 성지안내차량, 호텔, 펜션 예약 가능
 문의: 064)758-6476, 010-4566-6476

꼬메스영성상담소
 영성, 그 길을 만나면 쉽고 회복이 있습니다
 대면·전화·온라인상담 모두 가능(주1회)
 문의: 010-9916-5798 노경덕 신부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중독 중점치료(알코올·마약·도박·인터넷 게임 등),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의학과 진료
 때: (월~금) 9시~17시·야간진료(화) 18시~20시30분
 곳: 고양시 일산 동구 백석역 7번 출구 5분 거리
 문의: 031)810-9200 / 홈페이지: www.karf.co.kr

가리따스 알코올회복센터 / 문의: 02)521-2364
 가족이 술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알코올 중독 회복을 위한 주·야간재활 교육 및 의존자 가족교육과 자녀모임 상시 운영
 치료재활 여성반 신규 개설-매주(수) 19시
 때: 주·야간운영시간 (월·금) 9시~17시, (화·수) 19시~21시

진애인 가족치료연구소
 곳: 명동 / 02)587-9207(<http://jinaein.com>) 토요일 상담 가능

개인심리치료	정서 불안, 우울, 분노, 공황장애, 섭식장애 등
가족심리치료	부부, 가족(자녀) 갈등과 문제, 대인관계 부적응 등

전·진·상 영성센터 / 문의: 02)726-0700

전문 심리상담	개인, 부부, 가족(자녀), 청소년 및 미술 치료(아동) / 종합심리검사 심리정서(불안·우울·분노·공황장애·성격), 학교·직장 내의 부적응 소통과 관계의 어려움
---------	--

응암동성당 '요셉 추모와 축복의 벽' 패 신청
 추모패·축복패 접수 / 사용 기한: 무기한단, 20년 이후 재건축 등의 상황 변화에 따라 기간 변동될 수 있음
 대상: 고인(추모패), 세상을 살고 있는 교우·비신자 등(축복패) / 사용료: 1인패 100만원, 2인패 150만원
 혜택: 명절, 위령의날, 매월 합동 위령미사, 생미사·봉헌 자세한 내용은 사무실 문의 / 문의: 02)2021-2700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 상담팀
 언어상담, 매체상담(모래놀이치료·미술치료), 종합심리검사 / 대상: 만 9세~24세 청소년
 운영: (제)한국천주교살레시오회(서울시 위탁)
 회비: 언어상담 20회 10만원, 매체상담 20회 60만원, 종합심리검사 15만원 / 문의: 02)2051-3743
 카카오톡 채널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 상담팀' 검색 후 채널 추가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휴관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문의 바랍니다

유관단체 알림

베리타스심리상담센터 / 문의: 02)776-7726
 개인심리상담 및 모래놀이치료: 가톨릭회관(명동) 501호
 미술심리상담사 2급자격과정: 2021년 1월11일~2월8일 (월) 10시~16시(주5회, 선착순 6명)

직원모집

도서출판 성서와함께 미디어디자인부 직원 모집
 대상: 미디어디자인 관련 톨 및 영상 제작 톨 사용 능숙한 분(포토샵·일러스트·프리미어·애프터이펙트·파이널 컷 등), 경력자 우대 / 문의: 02)822-0125
 업무: 홈페이지 관리 및 유지 보수 관련 업무, 상품 상세페이지 및 배너 제작, 영상 촬영 및 편집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2021년 1월31일까지 이메일(account@withbible.com) 접수
 서류 전형 후 추후 일정은 개별 통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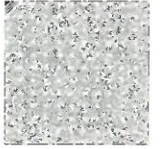
서울대교구 특수사목사제관 시설관리 직원 모집
 대상: 세례받은 분, 도시가스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 2급, 운전면허자격증 소지자 / 분야: 시설관리(명(계약직) 추후 정규직 전환 가능 /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지원업무 기재), 교적 사본, 본당 주민신부님 확인서(본당 발급) 각 1부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해당자 개별 통보)
 우편(우 04537, 서울시 중구 명동길74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무처) 및 이메일(aoinsa@seoul.catholic.kr) 접수
 2021년 1월5일(화) 도착분에 한함 / 이메일 문의

모집

서소문성지역사박물관 콘솔리움 합창단 단원 모집
 연습: 매주(수) 19시,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대상: 성가대 및 합창단未経験자, 50세 미만 성악전공자 우대 / 활동: 박물관 정기연주회(연 2회 예정), 미사와 행사 성가봉사 외
 문의: 010-3321-1535 지휘자

수도회 성소모임	III	곳	문의
도미니코 수도회	수시	강북구 삼양로139나길 16-8	010-3012-2616 조성하 신부
돈보스코 여자 재속회	수시	살레시오회(영등포구 여의대방로65) 3층	0505-1306-1505
성골롬반외방선교회	2021년 1월10일(일) 9시30분~13시	본부(돈암동, 전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02)924-3048(korvocation@columban.or.kr)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봉쇄 수녀회	수시	청주	043)295-5940(cpnunskorea@catholic.or.kr)

서울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유승자 데레사 | AF(국제 가톨릭 형제회)

예수님의 멍에는 가벼운가?

성탄절을 맞이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다 보면 어느새 한 해가 저물어갑니다.

올해에도 우리 각자는 주님께서 주신 사랑과 평화, 기쁨과 안식이 있었고, 지고 온 멍에와 짐도 있었을 것이기에, 마지막 남은 며칠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저는 새해맞이 준비를 하면서 지나온 해를 되돌아보다가, 지난여름, 피정 중에 지도신부님이 주신 마태오복음 11장 28절~30절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마태오복음을 읽으면서 묵상했던 저의 멍에와 그리스도의 멍에에 대해서 성찰한 것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정녕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마태 11,28~30)

저는 긴 세월 동안 수십 번 들어왔던 이 말씀 중에서 매번 듣고 싶고 좋아했던 구절,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만을 기억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구절은 귀에 들리지도 않았고, 마음에 남아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묵상을 해보니, 주님께서 주시겠다는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을 닮아야 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주님, 제가 어찌 감히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겸손과 온유보다는 오만과 불손으로 가득 찬 제가 감히 어떻게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울 수 있겠습니까?’

실망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푸념하면서 다음 주제로 주신 이사야서 43장을 열고 묵상하다가, 갑자기 눈물이 앞

을 가리어서 성경책을 덮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빚어 만드신 분, …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네가 물 한 가운데를 지난다 해도 나 너와 함께 있고… 네가 불 한 가운데를 걷는다 해도 너는 타지 않고,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이사 43,1~7)

마태오복음 11장을 읽고 실망하는 저의 마음에 이 성경 말씀은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제가 주님의 멍에를 질 수 없다 해도, 주님께서서는 저를 은총으로 도와주시고 저와 함께 계신다는 확신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멍에와 십자가가 아무리 무겁고 힘들어도 하느님 사랑이 더욱 크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의 멍에를 멜 때 그 멍에는 편하고 그 짐이 가벼울 것임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지극한 가난 속에서 겸손하게 태어나신 이 성탄절에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며, 기쁘게 주님을 따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나를 이끄는
성경구절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빛이
세상에 왔다



박경희 유스티나
수원교구 소하동성당

요한 묵시록 바로 알기 ③

요한 묵시록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요 상징

요한묵시록은 많은 상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이해하기 쉽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상징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앞서 살펴보았듯이 요한묵시록은 AD95년경에 작성되었고 당시 그리스도교는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묵시록은 너무나도 강력해 보이는 로마의 권세이지만 절대로 영원하지 않으며 하느님께서 이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로마의 지배를 받는 가운데 로마가 무너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드러내놓고 할 경우 박해와 탄압이 더욱 거세질 것이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요한을 통해 로마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 없지만, 그리스도교인들은 이 말이 어떤 뜻인지를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구약의 전통 안에서 사용되었던 상징과 비유로 알려주셨던 겁니다. 중요한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숫자와 관련된 상징을 살펴보면,

4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5,9)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의 모든 것”(5,13)	온 세상을 나타내는 상징
7	“그 어린 양은 뿔이 일곱이고 눈이 일곱이셨습니다.”(5,6) ‘일곱 봉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4-16장)	완전함, 총만함을 상징
12	“이스라엘 자손들의 열두 지파 이름이 하나씩 적혀 있었습니다.”(21,12)	총체적인 의미를 상징

그리고 요한묵시록 7장 4절의 ‘인장을 받은 이들의 수가 십사만 사천 명’이라는 말에서 인장을 받았다는 것은 하느님의 인호가 새겨졌음을 의미하며 144,000은

12*12*10*10*10으로서 하느님의 구원이 모든 사람들에게 향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또한 “저들은 어린양의 피로 자기들의 긴 겹옷을 깨끗이 빨아 희게 하였다.”(묵시 7,14)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요한묵시록 7장 9절에서 등장하는 ‘아무도 수를 셀 수 없을 만큼의 희고 긴 겹옷을 입은 큰 무리’는 예수님의 수난 공로를 통해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 사람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받게 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런 점에서 희고 긴 겹옷을 입은 사람들과 인장을 받은 144,000은 같은 맥락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2장에 등장하는 용은 13장에 등장하는 바다짐승과 땅 짐승과 하나를 이루고 있는데, 용은 악을 나타내는 상징이며, 바다짐승은 당시 그리스도교를 박해하던 로마의 황제 권력을, 땅짐승은 로마의 편에서 서서 활동하던 소아시아 연맹과 거짓 예언자들을 상징합니다.

“그 짐승을 숫자로 풀이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숫자입니다. 그 숫자는 육백육십육입니다.”(묵시 13,18)에서 666은 당시 알파벳을 숫자로 치환해서 표현하는 게 마트리아식 표현으로서 이를 풀이하면 네로 황제의 이름이 됩니다. 따라서 666은 네로 황제로 대표되는 로마의 황제들을 상징하면서 동시에 완전한 숫자인 7에서 1이 빠진 6이 3번 반복된 표현으로서 로마의 황제 권력이 영원하지 않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희생

1986년 감독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

아들이 네 온 마음을 담는다면
죽은 나무도 꽃을 피운다



| <희생>, 천국보다 낮은 영화 세계로의 초대

다양한 영화들이 있기에 감상하는 방법도 다양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서 비롯된 고전주의적 가치들에 무의식적으로 사로잡혀 우리는 편협하고 고정된 영화 감상의 기준과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리우드 영화들은 그것들을 더 강화시켜 놓았습니다. 개연성과 인과관계에 입각한 빠른 이야기 전개, 관객이 현실을 잊고 화면 위의 환상에 몰두하여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만드는 서사 전략은 할리우드가 그 시학으로부터 계승한 것입니다.

영화 매체는 새로운 영화 형식을 꾸준히 모색해왔습니다. 우연의 요소와 비논리적 전개 방식의 고의적인 채택, 인간의 심리와 감정의 미묘한 움직임 그 자체에 대한 탐구, 꿈과 환상과 현실을 뒤섞으며 의식의 흐름을 따라가는 이야기 전개, 관객이 환상에 몰두하지 못하도록 비평적인 거리감을 유지하게 하려는 장치들의 활용 등 새로운 미학적 실험을 통해 새로운 영화들이 탄생하여 왔습니다. 새롭고 다양한 영화들을 제대로 감상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기준과 틀을 보다 유연하게 확장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신고전주의 회화의 걸작인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을 감상하는 기준으로 피카소의 <게르니카>를 감상한다면 과연 제대로 감상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보다 유연한 감상의 틀을 가지고 감상한다면 <희

생>은 경이로운 미학적 체험을 안겨줄 것입니다. 감독은 시간과 공간을 조각하여 움직이는 이미지들의 거대한 조각상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각 장면들은 단지 이야기 전개를 위한 수단에 그치지 않고 그 자체로 존재 이유를 갖고 그 조각상 속의 독립된 조각상이 됩니다. 그렇기에 이 영화를 감상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조각 작품을 감상하는 것과 같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로맹의 거대한 조각 작품 <지옥의



문>을 감상할 때 우리는 우선 멀리서 직관적으로 감상합니다. 그 후 가까이 다가서서 그 안에 자체의 존재 이유를 갖고 존재하는 부분적인 조각상들, 즉, <생각하는 사람>이나 <웅크린 여인>이나 <아담>이나 <이브>의 존재 이유를 해석합니다. 그리고 직관적이고 전체적인 인상과 부분적인 해석들을 종합하면서 우리는 이 작품에 대한 예술적 체험을 완성합니다.

<희생>에서, 아버지 알렉산더와 함께 바닷가에 이미 죽은 나무 한 그루를 심었던 어린 아들 고센. 3년 동안 매일같이 물을 주어 죽은 나무에서 꽃이 피어나게 했다는 한 수도사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던 아버지를 생각하며 그 나무 아래에서 고센은 질문을 던집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는데, 아빠, 그게 무슨 뜻이죠?” 영화 안에서 제시되었던 문제들을 마지막 장면에서 완벽하게 해결하려는 대부분의 할리우드의 영화들과 달리 이 영화는 이렇게 질문으로 끝납니다. 관객들을 수동적인 수용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참여자로 만들려는 것이 이 영화가 추구하는 미학이기 때문입니다.

이광모 프란치스코 | 영화사 백두대간 대표



해외선교봉사국
기회특집

SED M... DIOSOS
COMO
EL
PADRE

RISTO



선교지에서의 팬데믹

| 칠레 |

찬미예수님! 칠레 이키케(Iquique)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이현규 신부입니다.

올해의 가장 큰 이슈는 역시 세계 어디에서나 문제인 그 바이러스일 것입니다. 이곳 칠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보다는 조금 늦게 시작되었지만, 그 어느 나라보다도 무섭게 퍼져 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올 3월 처음 바이러스가 칠레에 들어왔을 때,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칠레 정부는 유난히 강경책으로 바이러스 침투에 대응했고, 아마도 한국처럼 한두 달 안에 좋아지리라 예측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날이 갈수록 나빠졌고, 3월에 닫았던 성당 문은 10월까지 단 한 번도 열리지 못했습니다. 지역별로 다소 시기의 차이는 있었지만, 5월을 전후로 하여 대부분의 지역이 가장 강한 강도의 격리로 접어들었습니다. 여기서는 이를 콰렌테나(Cuarentena)라고 부릅니다. 가장 높은 단계인 1단계에 접어들면, 상점, 가게,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모든 개인의 외출마저 제한됩니다. 자기 집 밖을 나올 시에는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정부의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1인당 1주일에 2번, 최대 3시간의 외출만 가능합니다. 미사나 회의, 종교적 모임의 중단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저 역시 장례와 위급한 병자성사를 제외하곤 모든 업무를 중단한 채 주기적으로 갖는 온라인 전례와 회의로 만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봉쇄조치는 많은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무엇보다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심각합니다. 많은 이들이 직업을 잃었고, 당장 생활고에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정말 다행스럽게도 어려운 상황을 인지한 정부와 기업, 그리고 개인들이 선제적으로 도움을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동네와 같이 특별히 어려운 지역에 먼저 도움이 닿았고, 무료 급식소나 자선 상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서로가 서로를 돕는 시스템이 구축되었습니다. 교회와 본당 역시 그중한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 덕에 반년 이상의 봉쇄조치에도 이 도시에서는 아직 굶어 죽은 사람이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칠레 내부에서도 특별히 더 가난하다고 여겨지는 지역이기에 더욱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다.

이번 팬데믹 현상은 저뿐만 아니라 지구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현대인들에게 놀라운 충격으로 다가왔으리라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 했던 아픔과 단절된 삶에서 오는 여러 부정적인 모습들을 겪어야만 했지만, 반대로 그전에는 몰랐던 일상의 소중함,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게 될 수도 있다는 현실에 무뎠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소소한 행복들의 가치를 되찾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부디 모두가 아픔을 딛고 일어나, 다시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해 봅니다.

이현규 대건안드레아 신부 | 칠레 선교



ARS 1877-1336